

패션디자이너 마리 카트란주의 작품 특성에 관한 연구

이 민 선

명지대학교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조교수

요 약

패션디자이너 마리 카트란주는 프린트 패션 트렌드의 선구자로, 예술 작품과 같은 컬렉션 의상과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통해, 패션계에서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는 마리 카트란주의 작품 활동을 고찰하고, 작품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은 마리 카트란주의 생애와 작품 활동에 대한 문헌 연구와, 마리 카트란주 작품의 조형적 특징과 작품 특성을 밝히는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마리 카트란주의 주요 작품 활동을 살펴보면, 마리 카트란주는 2008년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기법을 이용한 프린트 드레스로 런던 패션계에 데뷔하였다. 이후 그녀는 매 시즌, 주제를 잘 드러내는 프린트, 혁신적인 텍스타일, 정교한 실루엣의 진화된 컬렉션을 발표하며, 창의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그녀는 여러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층을 만족시키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 컬렉션의 주요 조형적 요소는 프린트, 텍스타일, 형태이다. 마리 카트란주는 패션, 일상용품, 공예품, 사진, 조각 등에서 영감을 받아 트롱프뢰유 프린트를 완성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패턴 패브릭, 일반 패브릭, 표면 장식을 혼합하여 혁신적인 텍스타일을 개발하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 컬렉션에서 형태는 주제와 텍스타일에 따라 스트레이트 실루엣, 풍성한 A형 실루엣과 O형 실루엣, X형 실루엣, 비대칭 실루엣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의 작품을 살펴본 결과, 주요 작품 특성으로 초현실주의 비전의 사실적 표현, 절제된 형태미의 맥시멀리즘, 수공예 장식을 통해 데미 쿠티르 추구가 고찰되었다. 마리 카트란주는 입힐 수 없는 것을 여성에게 입히겠다는 디자인 철학을 트롱프뢰유 프린트, 혁신적인 텍스타일과 수공예 장식, 정교한 재단법의 의상에 담아 창조성의 한계를 확장시키고 있다.

주제어 : 마리 카트란주,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트롱프뢰유, 데미 쿠티르, 맥시멀리즘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오늘날과 같은 패션의 역사는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패션은 오랫동안 왕족과 같은 상류층이 권력과 부의 과시를 목적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하면서 발전하였다. 최초의 패션디자이너 찰스 프레드릭 워스(Charles Frederick Worth)가 등장하면서, 패션디자이너가 패션을 창조하는 패션사가 시작되었다. 패션디자이너는 사회·문화적 환경, 과학기술의 발전, 시대정신의 영향 속에서 고유한 미적 취향을 드러내는 시그니처 스타일을 발표하며 패션을 창조하고 있다.

현대 패션은 패션디자이너의 활발한 작품 활동의 결과물이다. 폴 푸아레(Paul Poiret)는 20세기 초 엠파이어 라인 드레스를 발표하여 오랜 관습이었던 코르셋의 착용을 타파하였다. 가브리엘 코코 샤넬(Gabrielle “Coco” Chanel)의 기능주의 패션은 현대 여성 패션의 원형이 되었다. 크리스토팔 발렌시아가(Cristóbal Balenciaga)는 의복 구성, 봉제, 소재에 대한 끊임없는 실험을 통해 구조적 디자인에 혁신을 가져왔다.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은 르 스모킹과 팬츠 슈트라는 새로운 유니폼을 현대여성에게 제공했다.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은 죽음, 전쟁, 섹스 등을 주제로 삼은 표현주의 패션을 발표해 패션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은 패션디자이너가 이끌고 있으며, 패션계는 항상 새로운 트렌드를 제안할 신인 패션디자이너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패션디자이너 마리 카트란주(Mary Katrantzou)는 디지털 그래픽을 활용한 독창적인 작품으로 프린트 패션 트렌드를 일으켰다. 헤럴드 경제(2013)의 특집기사에서 전문가들은 그녀를 ‘현재 디자인 세계를 움직이는 디자인 거장’으로 꼽았다. 마

리 카트란주는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레이 카와쿠보(Rei Kawakubo),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 미우치아 프라다(Miuccia Prada) 등과 같은 유명 디자이너들과 함께 선정되면서 패션계에서 영향력을 인정받았다.

패션디자이너는 선대의 디자이너로부터 영감을 얻어 작품 활동을 진행하고, 그의 창의적인 작품은 다시 동료 디자이너나 후대의 디자이너의 작품에 영감을 준다. 따라서 패션디자이너의 작품 세계에 대한 연구는 패션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며, 앞으로의 패션의 향방을 예측하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마리 카트란주는 미니멀리즘 패션이 우세하던 시기에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한 프린트 패션디자이너로 등장해,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로 떠올랐다. 마리 카트란주의 왕성한 작품 활동과 패션 선도력에 비해, 그녀의 작품 세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디자이너 마리 카트란주의 작품 활동을 고찰하고 작품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리 카트란주의 사례 연구는 차세대 패션디자이너에게 디자인 기법에서부터 브랜드의 설립에 이르기까지 창조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마리 카트란주의 작품 세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디자이너의 작품을 분석한 선행연구(고현진, 2013²⁾; 김지영, 2010³⁾; 이윤경, 2012⁴⁾)를 참고하였다. 디자이너의 생애와 작품 활동을 고찰한 후, 작품의 조형적 특징과 작품 특성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고찰과 컬렉션 분석으로 구성되었다. 마리 카트란주의 생애와 작품 활동을 고찰하기 위해서 패션 전문 서적, 인터뷰 기사, 마리

카트란주 공식 온라인 사이트의 바이오그래피를 참고하였다. 마리 카트란주의 작품의 조형적 특징과 작품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마리 카트란주의 온라인 사이트의 컬렉션 자료, 영국 보그 사이트(www.vogue.uk), 스타일 닷컴(www.style.com) 등과 같은 패션 전문 사이트의 컬렉션 리뷰 기사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마리 카트란주 작품의 범위는 그녀가 처음으로 패션계에 데뷔한 2008 F/W 시즌 센트럴 세인트 마틴 석사 컬렉션(Central Saint Martin's MA)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이름을 딴 첫 컬렉션인 2009 S/S 컬렉션부터 2015 Pre-Fall 컬렉션에 이르기까지 총 17시즌, 443점의 컬렉션의 상과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들로 한정하였다.

II. 마리 카트란주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마리 카트란주의 생애

패션디자이너 마리 카트란주는 1983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출생하였다. 그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어머니와 텍스타일 디자인을 전공한 사업가 아버지 사이에서 성장하며,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디자인을 접할 수 있었다.⁵⁾ 마리 카트란주는 2003년 미국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Rhode Island School of Design)에서 건축 공부를 시작했다. 그녀는 방학에 고국을 방문했다가, 런던에서 유학중인 남자친구의 권유에 따라 런던의 센트럴 세인트 마틴 스쿨(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s and Design)에 진학하였다.⁶⁾ 마리 카트란주는 그곳에서 텍스타일 디자인 공부를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패션과 인연을 맺었다. 마리 카트란주는 재학 시 만든 프린트 작품을 빌 블래스(Bill Blass) 사에 판매하면서, 자신의 프린트가 인테리어보다는 패션에 맞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⁷⁾ 그녀는

졸업 후 그리스 출신 디자이너 소피아 코코살라키(Sophia Kokosalaki)의 디자인하우스에서 패턴 디자이너로 근무하며 경력을 쌓았다. 그녀는 Yurtman(2008)⁸⁾과의 인터뷰에서 이 기간 동안 패션 산업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품게 되었고, 영감에서 출발해 컬렉션을 완성하는 것까지 전 과정을 익힐 수 있었다고 회상하였다.

마리 카트란주는 다시 센트럴 세인트 마틴 스쿨로 돌아가 패션디자인 석사과정에 진학하였다. 입학 초기 그녀는 부족한 경험과 지식으로 고전을 겪었지만, 유명 패션디자이너들의 작품을 공부하며 패션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⁹⁾ 그녀는 석사과정 디렉터 루이스 윌슨(Louis Wilson)의 엄격한 지도하에 끊임없이 작품을 만들고 의견을 구하며 실력을 키워나갔다.

마리 카트란주는 2008 F/W 시즌 센트럴 세인트 마틴 석사 컬렉션에서 졸업 작품을 발표하였다. 그녀는 트롬프뢰유(trompe-l'œil) 기법을 이용한 드레스 디자인으로 패션계의 주목을 얻었다. 마리 카트란주는 영국패션협회(British Fashion Council)의 뉴젠 스폰서십(NEWGEN Sponsorship)의 수혜자로 선정되어 2009 S/S 시즌에 런던 패션위크에서 컬렉션을 전시할 기회를 얻었다. 첫 컬렉션이 브라운즈(Browns), 콜레트(Collette), 조이스(Joyce)와 같은 저명한 부티크에 판매되면서¹⁰⁾, 마리 카트란주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데뷔하게 되었다. 그녀는 2009 F/W 시즌부터 패션쇼로 컬렉션을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마리 카트란주 컬렉션은 런던 패션위크의 가장 중요한 볼거리로 자리 잡았다.¹¹⁾

마리 카트란주는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트를 이용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프린트 패션 트렌드의 선구자로 떠올랐다. 2010년에 '스위스 텍스타일 어워드(Swiss Textiles Award)'를 수상하였고¹²⁾, 2011년에 영국패션협회의 '올해의 신인 여성복 디자이너상'과 영국 패션 섬유 조합이 수여하는 '올해의 영국 패션 섬유 수출상'¹³⁾, 2012년에 잡지 엘르

(Elle)가 선정하는 ‘올해의 영 디자이너상’을 수상하였다.¹⁴⁾ 마리 카트란주는 “프린트의 여왕(The Queen of Prints)”¹⁵⁾이라는 칭호에 만족하지 않고, 매 시즌 새로운 텍스타일과 형태의 컬렉션으로 패션계를 풍요롭게 해주고 있다.

2. 마리 카트란주의 작품 활동

마리 카트란주는 2008년에 졸업 작품으로 패션계에 데뷔 한 이래, 단기간에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로 떠올랐다. 마리 카트란주 컬렉션은 시즌을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고 실루엣이 정교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리 카트란주의 작품 활동을 초기(2008 F/W 컬렉션~ 2010 F/W 컬렉션, 총 5시즌), 성장기(2011 S/S 컬렉션~ 2014 S/S 컬렉션, 총 8시즌), 진화기(2014 F/W 컬렉션~ 2015 Pre-Fall 컬렉션, 총 4시즌)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초기는 마리 카트란주가 패션계에 데뷔하고 브랜드의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기간이며, 성장기는 패션계의 권위 있는 상들을 수상하며 창의성을 인정받고, 유수의 브랜드들과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진행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는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진화기는 마리 카트란주가 시그니처 스타일인 프린트 기법을 떠나 수공예 장식 기법에 주목한 작품을 발표하고, 온라인 쇼핑몰 오픈, 상품 라인의 확장 등 사업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는 시기이다.

1) 초기

마리 카트란주의 데뷔는 존 갈리아노, 알렉산더 맥퀸, 후세인 샬라얀 등과 같은 영국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들과 유사하다. 그녀는 센트럴 세인트 마틴의 졸업 패션쇼에서 호평을 얻어 자신의 브랜드를 설립하게 되었다. 2008 F/W 시즌부터 2010 F/W 시즌까지 총 5개의 시즌은 신인 디자이너 마리 카트란주가 트롱프뢰유 프린트 드레스라는 시그니처

스타일로 런던 패션계에서 독창성을 인정받는 시기이다. 패션 학자 Davies(2009)¹⁶⁾는 런던을 여러 문화의 용광로,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있는 곳, 유행에 앞선 두터운 고객층이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였다. 창조성과 고유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런던 패션위크를 신인 디자이너의 등용문으로 만들었다. 마리 카트란주는 만약 같은 컬렉션을 고국인 그리스에서 발표했다면 그냥 사장됐을 것이라고 밝혔는데¹⁷⁾, 런던 패션계의 다양한 제도적 지원 속에서 마리 카트란주 브랜드를 성장시켰다.

마리 카트란주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뉴젠 스폰서십과 CFE(Centre for Fashion Enterprise) 벤처 프로그램의 수혜자에 선정되었다. 뉴젠 스폰서십은 1993년 영국패션협회에서 마련한 제도로, 신진 디자이너를 발굴하고 창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¹⁸⁾ 마리 카트란주는 3년 동안 뉴젠 스폰서십의 지원을 받아 런던 패션위크에 무상으로 참가하였다.¹⁹⁾ 그녀는 또한, CFE 벤처 프로그램에서 무상 스튜디오와 함께, 법률과 회계, 마케팅과 홍보 등 사업 운영에 관련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았다.²⁰⁾ 마리 카트란주는 런던 패션계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영향력 있는 부티크를 판매처로 확보하고, 생산 기반을 구축했다.

마리 카트란주는 실물이라면 입지 못하는 세계를 여성에게 입히고 싶다는 독특한 디자인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이런 비전을 디지털 그래픽을 이용한 트롱프뢰유 프린트 개발로 실현시켰다.²¹⁾ 마리 카트란주는 2008 F/W 시즌과 2009 S/S 시즌에 오버사이즈 주얼리 프린트의 시프트 드레스를 발표하였다<그림 1>. 마리 카트란주의 디자인 과정은 컴퓨터 그래픽 작업,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재단과 봉제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그녀는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을 통해 가격과 무게 때문에 실제라면 착용할 수 없는 거대한 주얼리를 여성에게 입혔다.²²⁾ 마리 카트란주는 2009년 F/W 시즌에는 “향수를 입지 않는 여성은 미래가 없다”라

는 가브리엘 코코 샤넬의 명언을 인용하며²³), 말 그대로 <그림 2>와 같이 여성에게 향수병을 입혔다. 마리 카트란주는 아무도 교체도의 프린트 의상을 입지 않는 때에, 트롱프뢰유 프린트 드레스라는 시그니처 스타일을 각인시키며 런던 패션위크의 유망주로 떠올랐다.

2) 성장기

2011 S/S 시즌부터 2014 S/S 시즌까지 총 8개의 시즌은 마리 카트란주가 영국 패션계를 넘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시기이다. 프린트 의상이 패션계의 주요 트렌드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을 이용한 작품을 발표하였다. 마리 카트란주는 “프린트 트렌드의 선구자”²⁴)로서 한층 더 진보된 프린트 의상을 제시하고, 브랜드를 성장시켜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마리 카트란주는 정교해진 프린트, 구조적인 실루엣, 혁신적인 소재, 수공예 장식 기법의 컬렉션들을 차례로 발표하였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스위스 텍스타일 어워드상 등과 같은 권위 있는 상들을 수상하고, 스와로브스키 콜렉티브(The Swarovski Collective)에 9 시즌 연속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또한, 마리 카트란주는 여러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기회를 얻었다.

마리 카트란주의 프린트 의상은 시즌을 거듭할수록 점점 복잡해지고 입체적으로 구현되었다. 그녀의 초기 작품들은 하나의 프린트 패턴이 비교적 단순하게 의복 위에 놓인 형태였다. 마리 카트란주는 완성된 프린트 패턴을 3D 콜라주로 변형하는 작업을 추가해 구조적 형태의 의상을 발표했다.²⁵) 마리 카트란주는 2011 S/S 시즌에서 프린트 속의 2차원 사물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하여, 상들리에는 금속 목걸이로, 커튼 위의 장식덮개(pelmet)는 포트레이트 네크라인이나 소매로, 커튼은 긴 시폰 패널로, 전등갓은 미니 크리니 스커트로 구

현하였다<그림 3>. 마리 카트란주는 2011 F/W 시즌에서 고급 장식품을 중첩된 프린트와 구조적 형태의 의상으로 재현하였다.²⁶) 배우 키아라 나이틀리(Keira Knightley)와 보그 저팬의 편집장 안나 델로 루소(Anna Dello Russo) 등이 이 시즌의 드레스를 입고 공식 행사에 등장하면서, 그녀의 이름이 대중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마리 카트란주는 의복 구성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텍스타일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2011 F/W 시즌부터 니트웨어를 컬렉션에 추가하였다. 또한, 마리 카트란주는 런던 디자이너로서 처음으로 프랑스의 자수 아틀리에 르사주(Lesage)와 협업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²⁷) 그녀는 2012 F/W 컬렉션에서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트, 구조적 형태의 의복 구성에 르사주의 수공예 기술을 더해 현대적인 이브닝 웨어 <그림 4>를 탄생시켰다.

마리 카트란주는 혁신적인 컬렉션 작품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다른 브랜드들과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창조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2010년 향수 회사 식스 센트 퍼퓌즈(Six Scents Parfums)에서 향수 트롱프뢰유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²⁸), 2011년에는 아틀리에 스와로브스키(Atelier Swarovski)와 협업해 주얼리 컬렉션을 디자인하였다.²⁹) 2012년에는 영국 SPA브랜드 탑샵(Topshop)과의 캡슐 컬렉션³⁰), 프랑스 잡화 회사 롱샴(Longchamp)과의 핸드백 라인을 런칭하였다.³¹) 2013년에는 미국 데님 브랜드 커런 엘리엇(Current Elliott)과의 데님 컬렉션, 프랑스 신발 브랜드인 레페토(Repetto)와의 슈즈 컬렉션³²), 이탈리아 럭셔리 아웃도어 브랜드인 몽클레르(Moncler)와 협업한 아웃도어 컬렉션을 차례로 발표하였다.³³) 마리 카트란주는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고 소비자층을 확대하였다. 협업 프로젝트의 연이은 성공은 그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핸드백, 데님, 수영복, 액세서리 등과 같은 새로운 라인의 런칭으로 이어졌다.

3) 진화기

마리 카트란주 브랜드는 2009년에 설립된 이래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2014 F/W 시즌부터 2015 Pre-Fall 컬렉션까지 총 4개의 시즌은 마리 카트란주가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사업가로서도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 컬렉션의 판매처는 2009년 15개에서, 2015년 55개국의 250여개로 급증하였다.³⁴⁾ 브랜드가 성장하면서, 마리 카트란주는 명민한 사업가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녀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을 돌며 트렁크 쇼를 개최하고 페어에 참가해 고객들의 욕구를 파악하였다.³⁵⁾ 마리 카트란주는 2013년 11월 공식 온라인 사이트를 열고 인터넷 상거래를 시작하였다.³⁶⁾ 그녀는 자신의 온라인 쇼룸에서 컬렉션 의상과 함께 핸드백, 슈즈, 수영복, 액세서리, 우산, 티셔츠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는 2014년 10월 스포츠웨어 브랜드 아디다스(adidas)와 협업하여 ‘Adidas Originals by Mary Katrantzou’라는 스포츠웨어 라인을 런칭했다 <그림 5>.³⁷⁾ 마리 카트란주는 이 콜래보레이션을 통해 스포츠웨어까지 디자인 영역을 확대하였다.

마리 카트란주와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트는 오랜 기간 불가분의 관계였다. 그녀는 화려한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트 의상으로 “프린트의 여왕”³⁸⁾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브랜드를 성장시켰다. 마리

카트란주는 2014 F/W 시즌부터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트가 아니라 수공예 장식 기법에만 의존한 컬렉션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마리 카트란주 브랜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마리 카트란주는 2014 F/W 시즌의 컬렉션에서 ‘비언어적인 소통’의 도구인 상징, 기호에 주목하였는데, 배지, 메달, 교통기호 등과 같은 문양을 <그림 6>과 같이 기퓌르 레이스(guipure lace), 스위스 레이스(Swiss lace), 자수, 브로케이드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³⁹⁾ 2015 Resort 컬렉션에서 마리 카트란주는 ‘언어적 소통’을 주제로 삼아, 다양한 글씨체의 문자를 브로케이드, 후로킹 프린트(flocking print), 엠보싱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2015 S/S 시즌에는 초대륙 판게아(Pangaea)에서 영감을 받아서 기퓌르 레이스, 비즈 원단, 자수 등을 이용해 지질 구조의 이동을 묘사하였다.

마리 카트란주는 전 세계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폭넓은 소비자층을 만족시키고 있다. 그녀는 수공예 기술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서 아틀리에 장인들과 협력하여 예술 작품과 같은 컬렉션 의상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일반 소비자를 위해서 프린트를 이용한 상업적인 상품 라인을 개발해 자신의 미적 취향을 널리 전파하고 있다.



<그림 1>
2008 F/W
(출처: <http://www.vogue.co.uk>)

<그림 2>
2009 F/W
(출처: <http://www.marykatrantzou.com>)

<그림 3>
2011 S/S
(출처: <http://www.marykatrantzou.com>)

<그림 4>
2012 F/W
(출처: <http://www.marykatrantzou.com>)

<그림 5>
‘Adidas Originals by Mary Katrantzou’ 라인의 운동화
(출처: <http://www.marykatrantzou.com>)

<그림 6>
2014 F/W
(출처: <http://www.marykatrantzou.com>)

III. 마리 카트란주의 작품 특성

1. 마리 카트란주 컬렉션의 조형적 특징

마리 카트란주는 자신의 컬렉션을 “프린트, 텍스타일, 형태의 세 종간의 교합”⁴⁰⁾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녀는 각 시즌마다 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프린트, 텍스타일, 형태를 개발하고, 세 가지를 조합하여 혁신적인 컬렉션을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리 카트란주의 작품을 프린트, 텍스타일, 형태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1) 프린트

프린트는 실크 스크린(screen-block), 목판, 롤러(roller), 핸드 프린팅, 디지털 프린팅 기법 등을 통해 원단에 문양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⁴¹⁾ 마리 카트란주는 화려한 프린트 패션으로 패션계에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프린트의 여왕”⁴²⁾이라는 칭호가 상징하듯이, 프린트는 마리 카트란주의 디자인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마리 카트란주는 대학 시절 텍스타일 디자인을 전공하며, 전통적인 실크 프린팅 기법을 익혔다. 텍스타일 프린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마리 카트란주는 프린트를 시그니처 스타일로 삼은 패션 디자인을 발표하고 있다. 패션 저널리스트 Mower(2012)⁴³⁾는 마리 카트란주를 “포토샵의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of Photoshop)”이라고 극찬하였다. 마리 카트란주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디지털 이미지 프린트를 만들며, “실물이라면 입을 수 없는 것을 여성에게 입히고 싶다”⁴⁴⁾라는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실현하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의 프린트는 주제에 대한 심오한 탐구의 결과물이다. 그녀의 프린트를 표현대상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패션, 일상용품, 공예품, 사진, 조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패션은 마리 카트란주에게 좋은 영감의 소재가

되어왔다. 그녀의 데뷔작은 끌로에(Chloe), 베르사체, 샤넬의 트롱프튀유 주얼리 프린트의 의상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되었다.⁴⁵⁾ 그녀는 2009 S/S 시즌에는 주얼리 프린트를 활용한 컬렉션으로 바이어를 만족시켰다. 2010 F/W 시즌에는 마담 드 폰파두르(Madame de Pompadour)의 의상과 장식품 등, 역사의상을 프린트에 담아 현대 여성을 위한 드레스를 제안하였다. 마리 카트란주는 2014 S/S 시즌에는 신발에 주목하였다. 남성화 브로그(brogue), 운동화, 이브닝 슬리퍼를 선택하여, 각각의 디테일을 확대, 해체하면서 여성의 몸에 신발을 입혔다. 2015 Pre-Fall 시즌에서는 패션의 전통문양을 주제로 삼아, 페이즐리 프린트를 쪽매무늬 기법으로 재구성하였다.

마리 카트란주는 흔한 일상사물도 영감의 원천으로 삼았다. 그녀는 2012 F/W 시즌에서 숟가락, 옷걸이, 타자기, 시계, 욕조, 전화다이얼 등과 같은 사물을 프린트 문양에 담아, 이브닝 웨어로 만들었다. 2013 S/S 시즌에는 우표와 화폐를 프린트의 패턴으로 삼았다. 우표의 화려한 도안과 톱니모양의 가장자리가 주요 디자인 포인트가 되었고, 화폐의 숫자, 소용돌이 모양의 라인들이 섬세한 프린트로 옮겨졌다. 마리 카트란주는 일상용품을 확대, 축소, 반복, 재배열, 혼합시키면서 고급 의류용 프린트로 탈바꿈시켰다.

마리 카트란주는 수공예 장인의 공예품에서 디자인 요소를 찾아냈다. 공예품은 장식적 기능이 높은 생활용품으로 독특한 조형미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2009 F/W 시즌 옛날 크리스털 향수병을 원본으로 삼아 프린트 작업을 진행했다. 그녀는 인체의 곡선에 따라 향수병의 폭과 높이를 수정하여 여성을 향수병으로 둔갑시켰다. 마리 카트란주는 2011 F/W 시즌의 ‘Objets d’Art’ 컬렉션에서 파베르제 달걀 장식, 명나라의 꽃병, 마이센(Meissen) 도자기, 흑단 병풍, 칠보 공예 등의 고급 장식품에서 문양을 얻어 프린트로 옮겼다. 그녀는 현대 작가

의 공예품에도 관심을 기울였는데, 2010 S/S 시즌은 영국의 피터 레이튼(Peter Layton)의 분유리 아트(Blown Glass Art)를 테마로 삼았다. 그녀는 분유리 공예작품 특유의 화려한 색상과 문양을 프린트로 옮겼다.

디지털 이미지 작업을 하는 마리 카트란주에게 사진작가들의 사진은 좋은 원본이 되었다. 마리 카트란주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인테리어 잡지를 보며 성장하였다. 2011 S/S 컬렉션은 그녀의 성장 배경이 잘 드러나는데, 마리 카트란주는 헬무트 뉴튼(Helmut Newton), 기 부르댕(Guy Bourdin)의 사진과 아키텍처어 다이제이스트(Architectural Digest), 월드 오브 인테리어즈(World of Interiors)와 같은 인테리어 잡지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을 발표했다.⁴⁶⁾ 마리 카트란주는 사진 속의 이미지를 가지고 방을 디자인한 후 방을 여성의 몸으로 옮겼다. 2013 F/W 컬렉션은 20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사진작가 에드워드 스타이켄(Edward Steichen), 클래런스 화이트(Clarance White), 알프레드 스티글리츠(Alfred Stieglitz)의 흑백 사진이 사용되었다.⁴⁷⁾ 선명하지 않은 흑백 사진들이 프린트로 표현되어 몽환적인 분위기를 나타냈다. 마리 카트란주는 2014 Resort 시즌에도 풍경 사진을 주요 테마로 삼았다. 그녀는 정자, 온실, 호수, 정원, 연못, 고층 건물, 철교 등의 사진을 조합하여 상상 속의 풍경을 완성하였는데, 이때 컬러를 고채도로 바꾸면서 신비로운 분위기의 프린트를 완성했다.

트를 완성했다.

마지막으로 마리 카트란주는 현대 조각에서 영감을 받았다. 2012 S/S 시즌에 그녀는 미국의 조각가 존 체임벌린(John Chamberlain)의 찌그러진 자동차 조형물에서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⁴⁸⁾ 그녀는 존 체임벌린 작품을 그대로 프린트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의 발상법에서 영감을 받아 찌그러진 강통 캔, 꽃, 산호, 조개껍질 등을 조합한 새로운 프린트를 개발하였다.

마리 카트란주는 매 시즌마다 테마를 정하고, 주제에 맞는 시각적 리서치를 통해 프린트를 개발하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는 원본인 표현대상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확대, 축소, 해체, 재배열, 혼합, 컬러 수정 등의 정교한 작업을 거쳐 프린트로 창조하고 있다. 이렇게 완성된 프린트 이미지는 텍스타일 디자인으로 옮겨져 옷으로 완성된다. 마리 카트란주 컬렉션의 프린트를 표현대상에 따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텍스타일

마리 카트란주 컬렉션의 시그니처는 프린트이다. 마리 카트란주는 독창적인 프린트 의상으로 패션계에 프린트 유행을 가져왔다. 그녀는 “프린트는 나에게 제 2외국어가 되어 왔지만, 나는 프린트로 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느꼈다”라고 밝혔다.⁴⁹⁾ 이에 따라 그녀는 2014년 F/W 시즌부터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을 이용하지 않는

<표 1> 마리 카트란주 컬렉션의 프린트 표현대상

표현대상	패션	일상용품	공예품	사진	조각
컬렉션	쥘리리 - 2008 F/W - 2009 S/S	타자기, 숟가락, 연필, 옷걸이 등 - 2012 F/W 우표, 화폐 - 2013 S/S	향수병 - 2009 F/W	인테리어 사진 - 2011 S/S	존 체임벌린의 조형물 - 2012 S/S
	역사의상 - 2010 F/W		분유리 아트 - 2010 S/S	20C 초 흑백사진 - 2013 F/W	
	슈즈 - 2014 S/S		장식품 - 2011 F/W	풍경사진 - 2014 Resort	
	전통 문양 - 2014 Pre-Fall				

컬렉션을 발표하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는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기법으로 완성된 프린트 의상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에 혁신적인 텍스타일 개발로 모방 불가한 컬렉션을 완성하고 있다. 텍스타일은 옷을 만드는 소재로, 넓은 의미로 직물을 만드는 섬유, 실, 제직 또는 편성 제품, 펠트, 그물, 수예품 등을 포함하는 각종 섬유 제품을 포함하고 있다.⁵⁰⁾ 디자인 분석에서 텍스타일은 크게 옷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원단과 원단의 겉을 꾸미는 표면 장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리 카트란주는 주제를 담은 패턴 디자인에 표면 장식을 더해 혁신적인 텍스타일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3차원의 옷을 완성하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의 컬렉션에 사용된 텍스타일은 크게 패턴 원단, 일반 원단, 표면 장식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패턴 원단은 문양이 들어가 있는 원단으로, 마리 카트란주의 컬렉션에서 가장 중요한 텍스타일이다. 패턴 원단은 패턴의 표현 기법에 따라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트 원단, 니트 원단, 직조 원단으로 나눌 수 있다.

마리 카트란주는 오랜 기간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을 주요 기법으로 사용해왔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트 원단이 사용되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는 구현하려는 아이템과 실루엣에 따라 두께, 유연성, 투명도 등을 고려해, 소재를 선택하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 컬렉션의 주요 아이템은 드레스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고급 드레스 소재인 실크 크레이프<그림 7>, 실크 새틴<그림 8>, 실크 시폰<그림 9>, 실크 오간자<그림 10>, 실크 시폰 플리즈<그림 11> 등이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트 원단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구조적 형태의 의상제작에는 실크 본디드 소재(bonded fabric)<그림 12>, 저지 본디드 소재<그림 13>, 네오플렌(neoprene)<그림 14> 등과 같이 두께감이 있고 가벼운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

는 벨벳<그림 15>, 도비(dobby)<그림 16>, 마일러 가공(Mylar) 원단<그림 17>⁵¹⁾을 프린트 원단으로 사용해 독특한 재질감의 프린트 원단을 창조하기도 했다. 그녀의 소재에 대한 탐구는 일반 섬유 소재를 넘어, 체인 메일(chain mail)<그림 18>,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메시(Swarovski Crystal Mesh)<그림 19>⁵²⁾ 등과 같은 금속 원단과 시퀀(sequin) 원단<그림 20>, 운동화 제작용 하이테크 소재인 진공 성형 플라스틱 원단<그림 21>⁵³⁾, 비닐 원단<그림 22> 등, 플라스틱 소재로도 이어졌다. 마리 카트란주는 여러 소재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신소재를 개발하면서 혁신적인 프린트 의상을 발표하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는 2011 F/W 시즌부터 니트웨어를 추가하며, 스웨터 드레스, 니트 레깅스, 폴오버 스웨터, 가디건 등으로 아이টে를 다양화시켰다. 그녀는 니트 원단에 패턴을 넣는 전통적인 방법인 자카드 니트(Jacquard knitting)기법을 이용해 문양을 표현하였다<그림 23>. 마리 카트란주는 또한, 니트 원단에 장식을 넣는 방법으로 패턴을 표현하였다. 그녀는 자카드 니트 원단에 스위스 자수를 놓거나<그림 24>, 니트 원단 전면에 크리스털 장식을 달아 고유의 니트 원단을 개발하였다<그림 25>.

마리 카트란주는 직조 원단에 패턴을 표현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패턴 원단은 자카드 기법으로 제작하는 브로케이드이다. 브로케이드는 오톨도톨한 재질감과 특유의 광택을 가진 고급 원단이다. 마리 카트란주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독특한 텍스처의 브로케이드를 개발하였다. 마리 카트란주 컬렉션에서 톤 온 톤(tone-on-tone) 컬러의 브로케이드<그림 26>은 슈트 제작이나 은은한 패턴의 묘사가 필요한 디자인에 이용되었다. 마리 카트란주는 직물 장인들과 협력하여, 요철감이 있는 엠보싱 자카드(Embossed Jacquard) 원단을 개발하고, 자카드 뒷면을 겉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

<표 2> 마리 카트란주 컬렉션의 텍스타일

패턴 원단				니트 원단	직조 원단	일반 원단	표면 장식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트 원단						특수 원단	수공예 장식 기법
실크 소재	본딩 소재	섬유소재	기타 소재				
 <그림 7> 실크 크레이프 2009 F/W	 <그림 12> 실크 본딩 소재 2012 F/W	 <그림 15> 벨벳 2011 F/W	 <그림 18> 체인 메일 2012 S/S	 <그림 23> 자카드 니트 2011 F/W	 <그림 26> 브로케이드 2013 S/S	 <그림 31>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원단 2015 S/S	 <그림 36> 금속, 시퀀, 비즈 장식 2012 S/S
 <그림 8> 실크 새틴 2010 S/S	 <그림 13> 저지 본딩 소재 2008 F/W	 <그림 16> 도비 2014 Resort	 <그림 19>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메쉬 2013 S/S	 <그림 24> 니트+스위스 자수 2014 F/W	 <그림 27> 기뤼르 레이스 2014 F/W	 <그림 32> 시퀀 원단 2014 F/W	 <그림 37> 비즈, 진주 장식 2015 S/S
 <그림 9> 실크 시폰 2011 S/S	 <그림 14> 네오플렌 2014 S/S	 <그림 17> 마일라 가공 원단 2012 S/S	 <그림 20> 시퀀 원단 2015 Pre-Fall	 <그림 25> 니트+크리스탈 장식 2013 F/W	 <그림 28> 후로킹프린트 시폰 2015 Resort	 <그림 33> 체인메일 원단 2014 F/W	 <그림 38> 프린트+ 크리스탈, 리본 장식 2014 S/S
 <그림 10> 실크 오간자 2014 Resort			 <그림 21> 진공 성형 플라스틱 2014 S/S		 <그림 29> 벨벳 번 아웃 2015 Pre-Fall	 <그림 34> 메탈 디스크 원단 2014 F/W	 <그림 39> 프린지 장식 2011 S/S
 <그림 11> 실크 시폰 플리츠 2012 S/S			 <그림 22> 비닐 원단 2014 S/S		 <그림 30> 타월 자수 2015 Pre-Fall	 <그림 35> 밍크 2014 F/W	 <그림 40> 비즈장식의 자수 엠블럼 2014 F/W

(출처: <http://www.marykatrantzou.com>)

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는 2014 F/W 시즌부터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트를 사용하지 않은 컬렉션을 발표하고 있는데, 기뽀르 레이스(guiPURE lace)<그림 27>을 주요 소재로 삼아 작업하였다. 기뽀르 레이스는 프랑스어로 ‘실 레이스’란 뜻으로 망사와 같은 바탕이 없이 무늬를 직접 이어서 만드는 레이스이다.⁵⁴⁾ 기뽀르 레이스의 입체적인 외관은 매끈한 프린트 원단에서 표현할 수 없는 호사스러움을 가지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는 엠보싱 기법, 후로킹 프린트(flocking print)<그림 28>, 번 아웃(burn-out)<그림 29>, 타월 자수 기법<그림 30> 등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며, 패턴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는 패턴 패브릭과 함께 문양이 없는 일반 패브릭을 사용하며 컬렉션을 완성하고 있다. 그녀는 실크, 모직 원단과 같은 일반적인 소재들과 함께 독특한 외관을 가진 소재를 찾아 사용하고 있다. 작은 구형(球形)의 크리스털이 박혀 있는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원단(Swarovski Crystal fabric)<그림 31>, 시린 원단<그림 32>, 체인 메일<그림 33>, 메탈 디스크 원단<그림 34>, 링크<그림 35> 등의 고급 소재가 마리 카트란주의 컬렉션에서 사용되었다. 마리 카트란주는 쿠티르 컬렉션 수준의 의상을 원하는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급 텍스타일 개발에 힘쓰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는 자신이 “백시멀리즘의 미학”⁵⁵⁾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화려한 패턴의 프린트에 수공예 장식(embellishment)을 더해 호사스러운 컬렉션을 완성하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는 진주, 켈스톤, 크리스털, 비즈, 금속 등과 같은 반짝이는 소재<그림 36>, <그림 37>, 리본<그림 38>, 브레이드(braid), 프링지 fringe)<그림 39>, 깃털, 레이스, 자수 엠블럼<그림 40>과 같은 섬유 소재, 연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식물을 원단에 부착하여 표면 장식하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는

2010 S/S 시즌부터 2014 F/W 시즌까지 스와로브스키 콜렉티브(The Swarovski Collective)에 선정되었다. 그녀는 스와로브스키 사로부터 지원 받은 고품질의 크리스털, 비즈, 켈스톤 등을 이용해 표면을 장식하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는 자수 아틀리에 르사주 등 여러 아틀리에의 장인들과 협력하며, 높은 시간과 기술을 요구하는 표면 장식을 개발하며, 오프쿠튀르 수준의 고가의 의상들을 제작하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 컬렉션의 주요 텍스타일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3) 형태

형태는 어떤 사물의 생김새나 모양을 가리키는 것으로⁵⁶⁾, 의복의 형태는 평면의 옷감이 옷으로 입체화되어 나타나는 구조적인 디자인을 의미한다. 의복의 형태는 옷의 전체적인 외형 윤곽을 의미하는 실루엣(silhouette)으로 설명할 수 있다.⁵⁷⁾ 마리 카트란주는 초기 작품들은 트루프피유 기법의 프린트를 강조한 단순한 형태의 드레스였다. 그녀는 당시 패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적어 프린트에만 의존했다고 회상하였다.⁵⁸⁾ 마리 카트란주는 프린트의 의존도를 낮추고 여성의 인체를 돋보이게 하는 정교한 실루엣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체의 곡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스트레이트 실루엣, 여성성을 강조하는 X형 실루엣, 풍성한 아랫단의 A형 실루엣, 허리를 구속하지 않는 O형 실루엣, 비대칭 실루엣 등이 컬렉션의 테마, 프린트 문양, 텍스타일 장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스트레이트 실루엣은 마리 카트란주 컬렉션의 주요 실루엣이다. 스트레이트 실루엣은 인체의 라인을 왜곡하지 않아, 강한 시각 자극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스트레이트 실루엣 의상은 프린트나 텍스타일을 돋보이게 하는 좋은 캔버스로 이용하기 좋다. 마리 카트란주는 데뷔 후 2009 F/W 시즌까지 엄격한 좌우대칭의 스트레이트 실루엣으로

구성된 컬렉션을 발표하였다. 그녀는 2008 F/W, 2009 S/S 시즌의 주얼리, 2009 F/W 시즌의 향수병 등과 같은 패션 아이템을 트롱프뢰유 프린트에 담았다. 프린트 의상에 유행이 아니던 시기에 마리 카트란주의 시프트 드레스는 트롱프뢰유 프린트에 시선을 집중시켜, 브랜드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확립시켰다. 마리 카트란주는 2014 F/W 시즌 이후 비언어적인 소통, 언어적인 소통, 초대륙 판개아 등과 같은 추상적인 주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추상적인 주제를 시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패턴을 개발하고 프린트 기법이 아니라 수공예 장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는 호화로운 수공예 장식을 편안하게 착용하도록 스트레이트 실루엣을 선택하였다. 스트레이트 실루엣은 니트웨어 디자인에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니트 조직은 일반 직조 원단에 비해 신축성, 유연성, 드레이퍼리가 뛰어나, 스트레이트 실루엣의 표현에 적합하다. 마리 카트란주는 한 컬렉션에서 구조적 형태의 의상과 스트레이트 실루엣의 스웨터 드레스를 동시에 선보이며 다양한 고객의 취향을 만족시키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는 가는 허리를 강조하는 X형 실루엣의 구조적 디자인으로 여성미를 드러낸 의상을 발표하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는 2011 S/S 시즌에 방 안의 인테리어를 묘사한 구조적인 디자인으로 주목받았다. 이 후, X형 실루엣의 미니 각테일 드레스는 컬렉션의 주요 아이템이 되었다. 마리 카트란주는 2011 S/S, 2011 F/W, 2012 F/W, 2014 S/S 시즌에서 X형 실루엣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이 시즌들의 공통점은 홈 인테리어, 공예품, 일상 사물, 신발 등과 같이 3차원의 사물을 주제로 했다는 점이다. 마리 카트란주는 3차원의 사물을 2차원의 프린트로 옮기고 다시 여성의 인체에 맞게 3차원으로 구현하는 작업을 통해서 X형 실루엣을 완성했다. 그녀는 역사의상, 쿠티르 의상에서 실루엣을 빌려와 정교한 X형 실루엣을

완성하고 있다.⁵⁹⁾

마리 카트란주는 A형 실루엣과 O형 실루엣의 작품도 발표하고 있다. 이 두 실루엣은 다른 실루엣의 의상보다 프린트를 보여줄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 마리 카트란주는 2013 S/S, 2013 F/W, 2014년 Resort 시즌에서 풍성한 실루엣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 세 시즌은 우표와 화폐, 풍경 사진 등 2차원의 사물이나 예술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이었다. 마리 카트란주는 실크 시폰, 실크 오간자, 실크 새틴 등에 문양을 프린트하고 풍성한 아랫단의 A라인 스윙 드레스, 허리를 구속하지 않는 O형의 드레스 등을 제작하였다.

마리 카트란주는 좌우대칭의 프린트 패턴 의상으로 재능 있는 디자이너로 명성을 쌓았다.⁶⁰⁾ 마리 카트란주는 2010 S/S, 2010 F/W, 2012 S/S 시즌에는 좌우대칭이라는 엄격한 규칙을 깨고 자유로운 비대칭 실루엣의 의상을 발표하였다. 마리 카트란주는 2010 S/S 시즌에는 피터 레이튼의 분유리 공예에서 영감을 얻어, 유리 공예 작품의 유기적인 형태를 비대칭 실루엣의 드레스로 옮겼다. 2010 F/W 시즌에는 명화를 포토샵에서 변형해 작품을 만드는 글렌 브라운(Glenn Brown)에서 영감을 얻어⁶¹⁾, 마담 드 폰파두르의 초상화를 자르고 패치워크하면서 비대칭 실루엣을 창조하였다. 2011 F/W 시즌에는 존 체임벌린의 비대칭 형태의 조형물에서 영감을 받아 그녀도 역시 비대칭 실루엣의 드레스를 완성하였다.⁶²⁾ 마리 카트란주는 현대 작가들의 자유분방한 사고와 기법에서 영감을 받아 비대칭의 구조적 실루엣의 의상을 발표하였다.

마리 카트란주는 컬렉션의 표현 대상에 따라 최적의 실루엣을 선정하고, 선정된 실루엣을 텍스타일과 의복구성에 대한 실험을 통해 재현하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 컬렉션에서 사용된 주요 실루엣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마리 카트란주 컬렉션의 주요 실루엣

형태	스트레이트 실루엣	X형 실루엣	A형/O형 실루엣	비대칭 실루엣
표현 대상	패션 아이템 추상적 주제	3차원의 사물	2차원의 일상 사물 2차원의 사진	현대 작가의 작품
컬렉션	쥘리 - 2008 F/W - 2009 S/S 향수병 - 2009 F/W 비언어적인 소통 - 2014 F/W 언어적인 소통 - 2015 Resort 관계아 - 2015 S/S 니트웨어	홈 인테리어 - 2011 S/S 장식품 - 2011 F/W 일상사물 - 2012 F/W 슈즈 - 2014 S/S	우표, 화폐 - 2013 S/S 20C 초 흑백사진 - 2013 F/W 풍경사진 - 2014 Resort	피터 레이튼의 분류리 아트 - 2010 S/S 글렌 브라운의 회화 기법 - 2010 F/W 존 체임벌린의 조형물 - 2011 S/S

2. 마리 카트란주의 작품 특성

1) 초현실주의 비전의 사실적 표현

마리 카트란주의 작품들은 ‘초현실주의’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 그녀의 디자인 철학, 디자인 기법들은 현실을 바탕으로 공상의 세계를 구축하는 초현실주의와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의 디자인 철학은 “실제라면 입을 수 없는 예술과 디자인 요소들을 여성의 몸에 입히는 것”이다.⁶³⁾ 그녀는 큰 사이즈의 쥘리, 홈 인테리어, 도자기, 조각 작품, 신발, 사진 작품, 상상 속의 동물 등과 같이 입을 수 없는 것들을 화려한 컬러와 패턴의 옷으로 탈바꿈시켰다. 2011 F/W 시즌의 각테일 드레스<그림 41>은 마리 카트란주의 초현실적인 비전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19세기 중국의 도자기의 패턴과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되었다. 마리 카트란주는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그러하듯이 여성들이 자신의 작품을 입으며, 더 큰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기를 희망하였다.⁶⁴⁾

마리 카트란주의 디자인 작업은 주제의 선정, 시각적 이미지 리서치, 2D 콜라주 작업, 패턴 완성, 프린트나 텍스타일 개발, 의복 제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는 디자인 작업에서 콜라주(collage), 데페이즈망(dépayement)와 같은

초현실주의 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초현실주의자 막스 에른스트(Max Ernst)는 콜라주를 “둘 이상의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것들이 평면에서 우연히 혹은 인위적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⁶⁵⁾ 마리 카트란주는 콜라주 기법을 프린트 패턴을 구성할 때 적극 이용하고 있는데, 이질적인 사물들을 하나의 평면에 조합해 프린트를 창조하고 있다. 데페이즈망(dépayement)은 마리 카트란주 디자인의 가장 핵심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입을 수 없는 사물을 여성의 몸으로 옮긴다는 그녀의 작업 자체가 “일상적인 관계에서 사물을 추방하여 이상한 관계에 두는 것”⁶⁶⁾을 뜻하는 데페이즈망 기법을 이용한 것이다. 마리 카트란주는 기존의 것들을 여성의 몸이라는 새로운 맥락으로 보내, 특이한 결합을 통해 즐거움을 주고 있다. 2012 F/W 시즌에서 마리 카트란주는 일상용품에서 출발한 이브닝웨어 컬렉션을 발표하였다. 그녀는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맥락을 무시한 채, 붉은 색상의 사물의 이미지를 모아, 타자기 형태의 요크, 키보드 프린트의 페플럼, 로코코 프린트의 벨벳 원단을 조합한 드레스로 주목을 끌었다<그림 42>.

마리 카트란주의 초현실주의 비전은 사실적으로 묘사되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마리 카트란

주는 디지털 그래픽 기술, 의복 구성 기술, 수공예 기술을 이용해 초현실적인 주제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녀는 뛰어난 컴퓨터 그래픽 작업으로 “포토샵의 레오나르도 다빈치”⁶⁷⁾이라는 칭호를 얻었는데, 기존의 이미지를 포토샵 필터로 단순하게 변형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를 붓으로 삼아 컴퓨터 이미지처럼 보이지 않는 정교한 트롱프뢰유 프린트를 만들었다.⁶⁸⁾ 마리 카트란주는 실물과 같은 프린트에서 더 나아가, 프린트 속의 사물을 의복구성 기술과 수공예 장식으로 통해 3차원으로 구현하였다. 마리 카트란주의 트롱프뢰유 패션은 보는 이들을 초현실세계로 초대하며, 판타지를 제공하고 있다.

2) 절제된 형태미의 맥시멀리즘

마리 카트란주는 피에르 가르맹(Pierre Cardin), 베르사체(Versace), 비비안 웨스트우드 등과 같은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공부하며 패션에 대한 지식을 익혔다.⁶⁹⁾ 거장 디자이너들의 화려하고 장식적인 맥시멀리즘 패션은 그녀의 디자인 작업에 영향을 미쳤다. 마리 카트란주는 미니멀리즘 패션이 우세하던 시기에 화려한 컬러와 문양의 프린트 패션으로 패션계에 등장하였다. 마리 카트란주는 “맥시멀리스트 디자이너(Maximalist Designer)”⁷⁰⁾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그녀 스스로 자신이 맥시멀리즘의 미학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⁷¹⁾ 이지현, 노윤선(2012)⁷²⁾에 따르면 맥시멀리즘 패션은 과장된 형태, 화려한 컬러와 문양, 여러 소재들의 혼합, 수공예 장식 디테일을 주요 특성으로 하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의 맥시멀리즘 패션은 절제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의 디자인은 프린트, 텍스타일, 형태라는 세 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가 패션디자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착용자의 몸을 돋보이게 하는 것(flattering)’이다. 마리 카트란주는 화려한 트롱프뢰

유 프린트, 혁신적인 소재 개발, 독창적인 의복 구성 디자인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적절히 조합하면서, 옷이 아니라 착용자 우선의 절제된 맥시멀리즘 패션을 선보이고 있다. 그녀는 화려한 문양과 복잡한 장식 기법에는 스트레이트 실루엣, A라인 드레스와 같이 단순한 형태를 결합하고, 단순한 프린트에는 비대칭의 구조적 디자인을 결합하였다. 마리 카트란주는 2013 S/S 컬렉션에서 우표와 화폐에서 얻은 화려한 문양을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메시, 메탈릭 브로케이드와 같은 고급 소재에 옮긴 후, A라인 드레스, 시프트 드레스와 같은 단순한 형태의 의상으로 제작하였다<그림 43>. 2013 F/W 시즌에는 흑백의 은은한 프린트를 사용하면 주안점을 형태 실루엣에 치중하였다<그림 44>. 마리 카트란주는 혁신성을 유지하면서 여성들이 쉽게 착용할 수 있는 화려함 속의 중용을 지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3) 수공예 장식을 통한 데미 쿠투르 추구

마리 카트란주는 2011 F/W 시즌 ‘Objets d’Art’ 컬렉션에서 장식품에서 영감을 받아 호사스러운 수공예 장식의 드레스들을 발표하였다. 이 시즌의 작품 중 8300 파운드가 넘는 크리스탈 장식의 드레스가 18벌이나 판매되었다.⁷³⁾ 마리 카트란주는 곧, 뛰어난 수공예 기술로 완성된 고가의 의상을 원하는 고객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리 카트란주는 Mower(2012)⁷⁴⁾와의 인터뷰에서 8명의 아트 콜렉터들과 20명 이상의 고객들이 매 시즌 가장 화려한 쇼 의상을 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녀의 작품은 비욘세(Beyonce), 사라 제시카 파커(Sarah Jessica Parker)<그림 45>, 리한나(Rihanna), 미셸 오바마(Michelle Obama) 등과 같은 패션선도자들에게 입혀지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는 고가의 혁신적인 의상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정교한 수공예 장식의 데미 쿠투르(demi couture)의상을 디자인하고 있다.



<그림 41>
2011 F/W
(출처: <http://www.vogue.co.uk>)

<그림 42>
2012 F/W
(출처: <http://www.marikatrantzou.com>)

<그림 43>
2013 S/S
(출처: <http://www.marikatrantzou.com>)

<그림 44>
2013 F/W
(출처: <http://www.marikatrantzou.com>)

<그림 45>
2014 F/W 시즌
의상을 입은
사라 제시카 파커
(출처: <http://www.marikatrantzou.com>)

<그림 46>
2014 S/S
(출처: <http://www.marikatrantzou.com>)

데미 쿠티르는 고급 맞춤복인 오트쿠티르와 고급 기성복인 프레타포르테의 중간 개념⁷⁵⁾의 의상이다. 데미 쿠티르는 디자이너의 아틀리에를 직접 방문해서 수차례의 가봉을 거쳐야 완성되는 오트쿠티르 의상과는 달리 손쉽게 수공예 디테일로 완성된 옷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리 카트란주는 데미 쿠티르 의상에 대한 높은 수요에 따라 프린트에 수공예 장식을 더한 최고급 의상을 제작하고 있다. 주제를 나타내는 패턴을 단순히 프린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프린트 위에 크리스탈, 비즈, 자수 장식을 더해서 입체감을 더하고, 문양을 수직 자카드 기법이나 기궤르 레이스로 직접 직조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녀는 아틀리에의 장인들의 도움을 받아 오랜 시간의 수작업으로 완성할 수 있는 고급 디자인 기법을 사용한 드레스를 제작하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는 2012 F/W와 2014 S/S 시즌에 프랑스의 아틀리에 르사주와 협업하여 이브닝 웨어를 완성하였다. 르사주는 1930년대에 엘자 스킨아파렐리(Elsa Schiaparelli)와 초현실주의 패션을 창조했던 유서 깊은 아틀리에로, 마리 카트란주의 상상 속의 세계를 현실화해주었다.⁷⁶⁾ 2014 S/S 시즌에서 르사주의 화려한 장식 샘플을 사진으로 찍은 후, 200%로 확대해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를 이용해 실크 원단으로 옮겼다. 이 프린트 원단위

에 다시 비즈, 크리스탈, 리본, 깃털 장식을 더해 호사스러운 미니 각테일 드레스를 완성하였다<그림 46>.⁷⁷⁾ 마리 카트란주는 매 시즌 새로운 실험을 통해 최고급 소재, 정교한 수공예 장식, 정교한 재단의 쿠티르 수준의 의상을 발표하며 창조성의 한계를 넓히고 있다.

IV. 결론

마리 카트란주는 2008년 데뷔한 이래,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패션디자이너로 성장하였다. 그녀는 트롱프뢰유 프린트 드레스로 프린트 패션 트렌드를 이끌었고, 현재는 프린트, 수공예 장식, 정교한 실루엣의 예술 작품과 같은 의상으로 창조성을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는 마리 카트란주의 작품 활동을 고찰하고 작품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마리 카트란주의 작품 활동은 크게 초기, 성장기, 진화기로 구분할 수 있다. 마리 카트란주는 신인 디자이너의 등용문 중 하나인 센트럴 세인트 마틴 스쿨의 졸업 패션쇼에서 데뷔하였다. 초기의 마리 카트란주는 런던 패션계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트롱프뢰유 프린트를 이용한 드레스라는 시그니처 스타일을 각인시켰다. 성장기의 마리 카트

란주는 프린트 패션 트렌드 속에서 차별화된 컬렉션 제작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초기에 발표했던 단순한 실루엣의 프린트 드레스에서 벗어나 프린트의 중첩 사용, 구조적인 실루엣 개발, 수공예 장식 기술, 새로운 소재 사용을 통해서 혁신적인 컬렉션을 발표하였다. 또한, 마리 카트란주는 세계 유수의 브랜드들과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디자인하우스를 성장시켰다. 진화기의 마리 카트란주는 시그니처 스타일인 프린트를 벗어나, 유서 깊은 아틀리에의 장인들과 협력하여 수공예 장식 기법으로 완성한 예술 작품과 같은 컬렉션을 발표하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는 아디다스와 협업한 스포츠웨어 라인을 출시하여, 패션 언론, 패션선도자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이름을 알리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는 매 단계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진화된 컬렉션을 발표하고 있으며, 마리 카트란주 브랜드를 성장시키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 컬렉션의 작품들은 프린트, 텍스타일, 형태의 조합으로 창조되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는 패션, 일상용품, 공예품, 사진, 조각 등에서 영감을 받은 트롱프뢰유 프린트를 발표하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창조한 프린트나 문양을 패턴 페브릭, 일반 페브릭에 옮기고 표면 장식을 더해 혁신적인 텍스타일을 창조하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는 컬렉션의 주제, 프린트, 텍스타일 장식 등에 따라 스트레이트 실루엣, X형 실루엣, 풍성한 A형 실루엣과 O형 실루엣, 비대칭 실루엣 등 다양한 실루엣의 의상으로 컬렉션을 다채롭게 하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 작품의 작품 특성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초현실주의 비전의 사실적 표현이다. 마리 카트란주의 작품은 입을 수 없는 것을 입히겠다는 초현실주의 비전에서 출발하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정교한 트롱프뢰유 프린트를 완성하고, 2차

원의 디지털 이미지를 의복 구성 기술, 수공예 기법의 장식을 통해 3차원의 옷으로 구현해, 사실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적으로 구현된 마리 카트란주의 초현실주의 패션은 보는 이에게 자유와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둘째, 절제된 형태미의 맥시멀리즘이다. 마리 카트란주는 미니멀리즘 패션이 우세하던 시기에 화려한 프린트 패션으로 주목받으며, 대표적인 맥시멀리스트 디자이너로 불리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의 디자인은 화려한 컬러와 패턴, 텍스타일의 혼합사용, 호사스러운 수공예 장식 디테일, 구조적 실루엣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마리 카트란주의 맥시멀리즘 패션은 착용자를 돋보이게 하는 옷을 만들겠다는 의도에 따라 화려한 프린트와 텍스타일에는 단순한 실루엣을 결합하는 절제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수공예 장식을 통한 데미 쿠티르 추구이다. 마리 카트란주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원하는 패션선도자들을 위해 데미 쿠티르 의상을 발표하고 있다. 그녀는 파리 아틀리에의 장인과 협력하여 고급 소재를 개발하고, 정교한 재단, 수공예 장식 디테일을 더해 쿠티르 의상 수준의 기성복인 데미 쿠티르를 제작하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의 영똥한 아이디어는 장인들의 수공예 장식에 의해서 사실적으로 구현되면서 현대적인 감각의 이브닝 웨어로 탄생하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는 26세의 나이에 졸업 작품으로 패션계에 입문하여, 짧은 기간에 자신의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성장시켰다. 마리 카트란주는 당대의 패션 트렌드와 상관없이 “실제라면 입을 수 없는 것을 여성의 몸에 입히고 싶다”⁷⁸⁾는 자신의 디자인 비전에 집중하여, 강점인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통해 컬렉션을 완성하였다. 마리 카트란주의 독창적인 프린트 패션은 패션 언론의 관심을 끌며, 결국 프린트 패션 트렌드로 이어졌다. 마리 카트란주는 자신의 시그니처 스타일인 프린트 패션에 얽매이지 않고, 매 시즌 새로운 주제의 진화된 컬

렉션을 발표하고 있으며, 다양한 콜래보레이션 작업을 통해 디자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마리 카트란주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자신의 창조의 한계를 확장하고 있다. 패션 학생에서 혁신적인 패션디자이너로 성장한 마리 카트란주의 작품 활동과 작품 특성은 차세대 디자이너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제공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슬기 (2013. 8. 13). 디자인월드를 움직이는 68명의 거장들, 헤럴드 경제, 자료검색일 2015. 1. 1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813000016&md=20130816004257_BL
- 고현진 (2013). 핀란드 브랜드 마리메코의 디자인 미학,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3(3), pp.111-129.
- 김지영 (2010). 빅터 앤 톨프의 디자인 발상과 작품 특성, 복식, 60(10), pp.47-64.
- 이윤경 (2012). Lanvin 디자인에 나타난 미적 특성 -Alber Elbaz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8(2), pp.348-359.
- Menkes, S. (2012. 2. 20). The Queen of Prints,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2014. 12. 20. <http://www.nytimes.com/2012/02/21/fashion/during-london-week-mary-katrantzou-talks-about-prints.html?pagewanted=all>
- Jones, D. (2012. 6. 15). The House Of Katrantzou, Vogue UK Online, retrieved 2015. 1. 10. <http://www.vogue.co.uk/news/2012/06/15/the-house-of-katrantzou>
- Santlofer, D. (2012). 50 Contemporary Fashion Designers You Should Know, New York: Prestel Publishing, pp. 70-71.
- Yurtman, B. (2008. 12. 2). Mary Katrantzou, Bone Magazine, retrieved 2015. 1. 6. <http://thebonemagazine.com/en/entry/mary-katrantzou>
- Jones, D. (2012. 6. 15). op.cit
- Santlofer, D. (2012). op.cit., p. 71.
- Bumpus, J. (2011. 2. 22). Mary Katrantzou Autumn/Winter 2011-12 Ready-To-Wear, Vogue UK Online, retrieved 2015. 1. 5.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11/ready-to-wear/mary-katrantzou>
- Ibid.
- Milligan, L.(2011. 10. 12). Great Exports, Vogue UK News, retrieved 2015. 1. 5. <http://www.vogue.co.uk/news/2011/10/12/fashion-textile-export-awards-announcement>
- Mary Katrantzou biography. Marykatrantzou Online, retrieved 2015. 1. 6. <https://www.marykatrantzou.com/biography>
- Menkes, S. (2012. 2. 20). op.cit.
- Davies, H. (2009). British Fashion Designers, London: Laurence King Publishing, p. 9.
- Mindova, V. (2012. 11. 27). Mary Katrantzou: success has made me bolder, GRReporter Online, retrieved 2015. 1. 5. http://www.grreporter.info/en/mary_katrantzou_success_has_made_me_bolder/8204#sthash.LMgNQYmA.dpuf
- Newgen (2014. 11. 6). British Fashion Council Online, retrieved 2015. 11. 6. <http://www.britishfashioncouncil.com/business-support-awards/NEWGEN>
- Ibid.
- Designers Alumni Mary Katrantzou, Centre for Fashion Enterprise Online, retrieved 2015. 1. 5. <http://www.fashion-enterprise.com/designer/mary-katrantzou/>
- Menkes, S. (2012. 2. 20). op.cit.
- Jones, D. (2012. 6. 15). op.cit.
- Fury, A. (2009. 2. 24). London Womenswear A/W 09 Mary Katrantzou, SHOWstudio Online, retrieved 2015. 1. 5. http://showstudio.com/collection/mary_katrantzou_london_womenswear_a_w_09/show_report
- Wong, Z. (2013. 3. 28). Mary Katrantzou: “When I first started, women weren’t wearing prints.”, Vogue AU Online, retrieved 2015. 1. 6. <http://www.vogue.com.au/people/interviews/mary+katrantzou+rwhen+i+first+started+women+werent+wearing+prints,22905>
- Santlofer, D. (2012). op.cit., p. 71.
- Autumn Winter 2011, Mary Katrantzou Online, retrieved 2015. 1. 10. <https://www.marykatrantzou.com/collections/ready-to-wear/autumn-winter-2011/about>
- Fogg, M. (2013). Fashion: the whole story, New York : Prestel Publishing, p. 524.
- Vazifdar, L. (2011). Mary Katrantzou, Soma Magazine, Fashion Issue 2011, vol 25.1, retrieved 2015. 1. 10. <http://www.somamagazine.com/mary-katrantzou/>
- Mary Katrantzou Biography. London Fashion Week Online, op.cit.
- Alexander, E. (2012. 2. 10). Mary For Topshop, Vogue UK Online, retrieved, retrieved 2015. 1. 6. <http://www.vogue.co.uk/news/2012/02/10/mary-katrantzou-tops-hop-collection-unveiling>
- Menkes, S. (2012. 2. 20). op.cit.
- Mary Katrantzou for Repetto for Colette, Mary Katrantzou Online, retrieved 2015. 1. 5. <https://www.marykatrantzou.com/projects/mary-katrantzou-for-repetto-for-colette/the-collection>
- Mary Katrantzou for Moncler M, Mary Katrantzou Online, retrieved 2015. 1. 5. <https://www.marykatrantzou.com/projects/mary-katrantzou-for-moncler-m/inspiration>
- Mary Katrantzou Biography (2014). London Fashion

- Week Online, 자료검색일 2015. 1. 6. http://www.londonfashionweek.co.uk/uploads/documents/doc_6898.pdf
- 35) Merry Mary (2013. 12). Vogue Korea Online, 자료검색일 2015. 1. 10. http://www.vogue.co.kr/content/view_01.asp?menu_id=02030100&c_idx=012203020000054&C_=11
- 36) Wong, Z. (2014. 3. 28). op.cit.
- 37) Kilcooley-O'Halloran, S. (2014. 4. 16). Mary Katrantzou For Adidas April 2014, Vogue UK Online, retrieved 2015. 1. 5. <http://www.vogue.co.uk/news/2014/04/16/mary-katrantzou-adidas-collaboration>
- 38) Menkes, S. (2012. 2. 20). op.cit.
- 39) Mary Katrantzou Biography. London Fashion Week Online. op.cit.
- 40) Merry Mary (2013. 12). Vogue Korea Online. op.cit.
- 41) Udale, J. (2008). 텍스타일과 패션, 서혜옥 옮김 (2008). 서울: 디자인 리서치 앤 플래닝, p.90.
- 42) Menkes, S. (2012. 2. 20). op.cit.
- 43) Mower, S. (2012. 2. 11). Mary Katrantzou / Fall 2012 RTW, Vogue Online, retrieved 2015. 1. 6. <http://www.vogue.com/fashion-week/862740/mary-katrantzou-fall-2012/d/>
- 44) Menkes, S. (2012. 2. 20). op.cit.
- 45) Jones, D. (2012. 6. 15). op.cit
- 46) Santlofer. D. (2012). op.cit., p.71.
- 47) Bumpus, J. (2013. 2. 18). Mary Katrantzou Autumn/Winter 2013-14 Ready-To-Wear, Vogue UK Online, retrieved 2015. 1. 5.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13/ready-to-wear/mary-katrantzou>
- 48) Blanks, T. (2011. 9. 20). Spring 2012 Ready-to-Wear Mary Katrantzou, Style Online, retrieved 2015. 1. 6. <http://www.style.com/fashion-shows/spring-2012-ready-to-wear/mary-katrantzou>
- 49) Leung-Davies, L. (2014). Natural Evolution- Mary Katrantzou, Joyce Online, retrieved 2015. 1. 6. <http://www.joyce.com/fashion-article/mary-katrantzou/>
- 50) 네이버(검색어: textile), 자료검색일 2015. 1. 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97749&cid=50345&categoryId=50345>
- 51) Blanks, T. (2011. 9. 20). Spring 2012 Ready-to-Wear Mary Katrantzou, Style Online, retrieved 2015. 1. 6. <http://www.style.com/fashion-shows/spring-2012-ready-to-wear/mary-katrantzou>
- 52) Blanks, T. (2012. 9. 16). Spring 2013 Ready-to-Wear Mary Katrantzou, Style Online, retrieved 2015. 1. 6. <http://www.style.com/fashion-shows/spring-2013-ready-to-wear/mary-katrantzou>
- 53) Blanks, T. (2013. 9. 15). Spring 2014 Ready-to-Wear Mary Katrantzou, Style Online, retrieved 2015. 1. 6. <http://www.style.com/fashion-shows/spring-2014-ready-to-wear/mary-katrantzou>
- 54) 네이버(검색어: guipure lace), 자료검색일 2015. 1. 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5695&cid=50345&categoryId=50345>
- 55) Menkes, S. (2012. 2. 20). op.cit.
- 56) 손미영, 권유진 (2014). 패션디자인,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p.137.
- 57) 네이버(검색어: silhouette), 자료검색일 2015. 1. 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25151&cid=42219&categoryId=42230>
- 58) Mary Katrantzou: London's Colorful Designer Leaves Prints for the Runway (2011. 2. 24). op.cit.
- 59) Blanks, T. (2011. 2. 22). Fall 2011 Ready-to-Wear Mary Katrantzou, Style Online, retrieved 2015. 1. 6. <http://www.style.com/fashion-shows/fall-2011-ready-to-wear/mary-katrantzou>
- 60) Santlofer. D. (2012). op.cit., p.71.
- 61) Autumn Winter 2010, Mary Katrantzou Online, retrieved 2015. 1. 10. <https://www.marykatrantzou.com/collections/ready-to-wear/autumn-winter-2010/about>
- 62) Blanks, T. (2011. 9. 20). op.cit.
- 63) Mary Katrantzou: London's Colorful Designer Leaves Prints for the Runway (2011. 2. 24). op.cit.
- 64) Merry Mary (2013. 12). Vogue Korea Online. op.cit.
- 65) Nagel, J. (2007). (어떻게 이해할까?) 초현실주의, 황종민 옮김 (2008). 서울: 미술문화, p.31.
- 66) 네이버(검색어: 데페이즈망), 자료검색일 2015. 1. 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59669&cid=42635&categoryId=42635>
- 67) Mindova, V. (2012. 11. 27). op.cit.
- 68) Menkes, S. (2012. 2. 20). op.cit.
- 69) Jones, D. (2012. 6. 15). op.cit.
- 70) Collins, L. (2012. 6. 4). Maximalist Designer Mary Katrantzou, New Yorker Magazine, retrieved 2014. 1. 10. <http://www.newyorker.com/magazine/2012/06/04/maximalist>
- 71) Menkes, S. (2012. 2. 20). op.cit.
- 72) 이지현, 노윤선 (2012). 알렉산더 맥퀸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복식, 62(6), pp.165-181.
- 73) Milligan, L. (2011. 6. 7). The Rise Of Demi-Couture, Vogue UK News, retrieved 2015. 1. 10. <http://www.vogue.co.uk/news/2011/10/26/couture-on-ready-to-wear-c-atwalks--instant-couture>
- 74) Mower, S. (2012. 2. 11). op.cit.
- 75) 네이버(검색어: demi-couture), 자료검색일 2015. 1. 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87212&cid=43667&categoryId=43667>
- 76) Fogg, M. (2013). op.cit., p.524.
- 77) Harris, S. (2013. 9. 16). Mary Katrantzou Autumn/Winter 2013-2014 Ready-To-Wear, Vogue UK Online, retrieved 2015. 1. 5.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13/ready-to-wear/mary-katrantzou>
- 78) Menkes, S. (2012. 2. 20). op.cit.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a Fashion Designer Mary Katrantzou's Works

Lee, Min Sun

Assistant professor, Dept. of Design, Fashion design, Myongji University

Abstract

As a forerunner of the print fashion trend, a fashion designer Mary Katrantzou has a great deal of influence on the fashion industry through collection costumes like artworks and various kinds of collaborations.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Mary Katrantzou's work activities and identifying work characteristics. As for research methods, it conducted literature research on a life and work activities of Mary Katrantzou and a case study on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her works. In terms of main work activities, Mary Katrantzou made her debut in the London fashion industry as a print dress using a digital textile printing technique in 2008. Since then in every season, she has been presenting evolutionary collections of print expressing a theme well, innovative textile and an elaborate silhouette, winning much recognition on creativity. Besides, she satisfies a range of consumers through collaborations with a lot of brands. In Mary Katrantzou collections, main formative elements contain the print, textile and form. Mary Katrantzou brings trompe-l'œil print to perfection inspired by fashion, daily articles, craft works, photos and sculptures. Furthermore, she is developing the innovative textile through mixing patterned fabric, general fabric and surface decoration. Mary Katrantzou collections show various silhouettes including straight-typed, flowing A-typed and O-typed, X-typed and asymmetrical silhouettes according to a theme and textile. As a result of analyzing Mary Katrantzou's works, research findings show realistic expressions of surrealist vision, maximalism of moderate formative beauty and pursuit of demi couture by handicraft decoration as main characteristics. Mary Katrantzou integrates her design philosophy on dressing women in clothes that they can't wear with dress of trompe-l'œil print, innovative textile, handicraft decoration and exquisite cutting, expanding a boundary of creativity.

Key words: Mary Katrantzou, Digital Textile Printing, trompe-l'œil, demi couture, maximalism

